

사상체질 처방 활용 현황 및 유효 질환 조사

장은수 · 유종향 · 김윤영 · 박기현 · 이시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The Using Status and Effectiveness of Sasang Constitutional Herbal Prescription

Eunsu Jang, Jonghyang Yoo, Yunyoung Kim, Kihyun Park, Siwoo Lee
Korea Institution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ives

We aimed to derive using status of Sasang Constitutional herbal prescription and good effective one in specific disease.

2. Methods

We sent Questionnaire to 463 oriental medical doctor listed Korea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from 2009 years. 10 to 11 and got back 191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sex, age, clinical duration, working type, using status and effectiveness of Sasang Constitutional herbal prescription.

3. Results

- Digestive tract disease was especially most effective field, and circulatory, the endocrine, dermatology, psychopathy, urogenital disease went in order in western disease.
- Spleen disease was especially most effective field, and the heart and circulatory, neuropsychiatry, lung, liver, psychopathy, gynecology disease went in order in oriental medicine pathology.
- Chungshimyenja-tang was effective to neuropsychiatry and heart disease in Taeumin, Hyangsayangwi-tang to disease related digestive system, Palmulgunja-tang to gynecology disease in Soeumin, Dockhalgiwhang-tang to diet disorder, Yanggeuksanwha-tang to heart and psychologic disease in Soyangin.

4. Conclusions

Constitutional prescription effected on special pathological symptom support weaken organ, and these result will help to make treatment standard and support clinical study of constitutional medicine.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Herbal Medicine, Prescription, Effectiveness

• 접수일 2010년 10월 20일; 심사일 2010년 10월 25일;
승인일 2010년 11월 25일
• 교신저자 : 이시우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체질의학임상연구센터
Tel : +82-42-868-9555 fax : +82-42-868-9480
E-mail : bfree@kiom.re.kr
* 연구비 지원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I. 緒 論

근거중심의학에 따르면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가장 높은 근거는 질 높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RCT; Randomized Clinical Trial)과 체계적 문헌고찰(SR; Systematic Review)이라고 알려져 있다¹. 이런 근거를 갖추기 위해 한의학에서도 우선 처방에 대한 근거기준²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³.

한의학에서 치료 방법으로 한약과 침구가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며, 『동의수세보원』에 따르면 이제마 역시 체질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침구 치료, 한약치료, 조양을 논하고 있다.

이제마는 사람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최근 이 등은 사상체질에 따라 질병 경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체질을 구별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⁴. 『동의수세보원 신축본』에서 이제마는 少陰人 中氣病 舌卷不語 증상이 있을 때 합곡혈에 침을 놓아 그 효과가 신효하다고 하는 등 체질별로 침 치료 활용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주로 역대 의가의 용약에 대해 언급하고 주로 약물 치료를 위주로 하였다.

비록 이제마가 체질처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였다고는 하나, 한약과 침구와 같은 한의학치료와 관련된 임상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진단 및 시술방법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며⁵, 체질처방 역시 다양한 병증에 대한 기록이 적어 현재 그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상의학을 포함한 한의학 진단 및 치료기술의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이론에 기반한 한의학적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⁶.

지금까지 한의계 임상 치료법의 현황에 대한 연구로 한 등⁷이 침구설문을 통해 침구임상의 현황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침에 국한된 임상적 치료현황으로 체질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유 등⁸은 체질을 이용한 임상연구 현황을 조사하여, 체질을 이용한 임상연구가

어렵다는 것을 논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면이 있었다.

한국 사상 임상계에서 어떤 질병에 어떤 처방을 주로 활용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특효처방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체질처방의 활용범위를 표준화 하고, 임상연구의 기반을 구축하며 나아가 맞춤 약물 개발로 나아가는데 기반이 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 임상가들을 대상으로 체질처방 활용 현황과 체질 병증에 특효를 보이는 처방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사상체질의학회 회원으로 등록된 한의사 921 명 중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가 있는 463명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2달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우편과 이메일, 팩스를 사용하여 발송하였는데,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화통화로 협조를 구하였다. 그 결과 우편 52부, 이메일 136부, 팩스 2부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자료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9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91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한 등⁷의 연구에서 침구치료기술에 활용한 설문항목을 기반으로 이를 사상체질과 관련된 문항으로 변경하여 일반사항과 체질처방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임상경험, 근무형태, 체질진단 및 처방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체질 처방 사용현황으로 효과가 있는 양·한방 질환과 한방병증에 대한 특효처방을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한방질환 및 병증 분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 12대 분류⁹의 분류표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체질 병증 특효 처방의 병증이 지엽적이거나 국소적인 경우 2인 평가자의 합의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분류기준에 따라 12대 분류로 재분류하였다.

1) 嘗見 少陰人 中氣病 舌卷不語 有醫 針合谷穴而 其效如神, 其他諸病之藥不能速效者 針能速效者有之, 蓋 針穴亦有太少陰陽四象人應用之穴而 必有升降緩束之妙 繫是 不可不察, 敬俟 後之謹厚而好活人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Variables	Men		Women		Total		
	N	%	N	%	N	%	
Clinical duration	Under 5 years	33	20.1	13	48.1	46	24.1
	5 -9 years	60	36.6	7	25.9	67	35.1
	10-14 years	26	15.9	4	14.8	30	15.7
	15-19 years	23	14.0	3	11.1	26	13.6
	over 20 years	22	13.4	0	0.0	22	11.5
Age	under 30	16	9.8	9	33.3	25	13.1
	30-39	85	51.8	14	51.9	99	51.8
	40-49	48	29.3	2	7.4	50	26.2
	Over 50	15	9.1	2	7.4	17	8.9
Working type	Oriental clinic	117	71.3	16	59.3	133	69.6
	Oriental hospital	25	15.2	10	37.0	35	18.3
	University or Research center	3	1.8	1	3.7	4	2.1
	Etc	19	11.6	0	0.0	19	9.9
Total		164	100	27	100	191	100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평균 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체질처방의 활용현황 및 병증별 특효처방에 대해서는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13.1%, 30대가 51.8%, 40대가 26.2%, 50대 이상이 8.9%였다. 근무형태는 한의원근무가 69.6%, 병원 근무가 18.3%, 기타가 9.9%였다(Table 1).

Ⅲ. 研究結果

1. 일반 사항

참여한 대상자들은 남성이 164명, 여성이 27명으로 총 191명이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3.8세였고 임상기간은 5년 미만인 24.1%, 5년 이상-10년 미만이 35.1%,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5.7%,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3.6%, 20년 이상이 11.5%였다. 연령은 20대가

2. 체질 처방의 활용 현황

환자 치료 시 체질처방을 반드시 한다고 한 경우 27.7%, 거의한다고 한 경우 37.2%, 필요에 따라 한다고 한 경우 34.0%, 전혀 안한다고 한 경우가 1.0%였고, 전체 환자 대비 체질 처방 비율은 평균 73.1%였다.

3. 체질처방 활용 시 양방질환 강점 분야

체질 처방을 고려하여 치료 시 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양방질환을 알아본 결과 소화기계 질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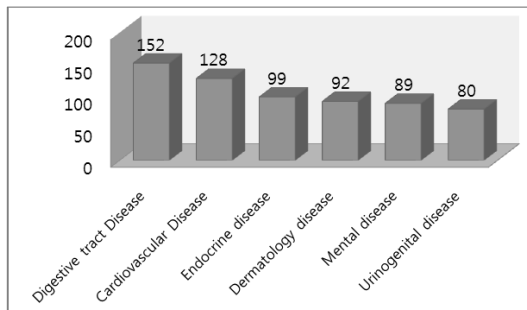


Figure 1. Effective field of constitutional prescription in western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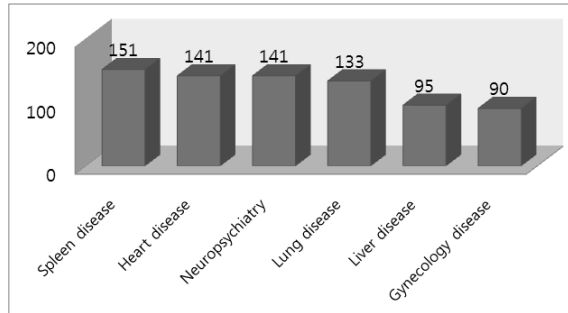


Figure 2. Effective field of constitutional prescription in oriental disease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순환기계, 내분비계, 피부질환, 정신질환, 비뇨생식기계 순이었다(Figure 1).

4. 체질처방 활용 시 한방질환 강점 분야

체질 처방으로 고려하여 치료 시 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한방질환에 대해 알아본 결과 비계 질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계질환, 신경정신질환, 폐계질환, 간계질환, 부인과질환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2).

5. 체질 병증 특효 처방

1) 태음인 처방

태음인에게서 체질처방을 활용하는 다빈도 질환은 비계질환에 37건, 신경정신질환에 34건, 심계질환에 32건, 폐계질환에 27건, 외과질환에 22건, 간계질

환에 17건, 안이비인후과질환에 13건, 운동기 질환에 12건, 부인과질환에 11건으로 효과 있게 사용되었다 (Table 2).

질환에 대해 태음인에게 사용한 다빈도 체질처방은 청심연자탕이 62건, 태음조위탕 37건, 조위승청탕 26건, 갈근해기탕, 열다한소탕 25건, 청폐사간탕 12건, 조리폐원탕 및 마황정천탕 6건 순이었다.

질환별로 사용회수 10회가 넘는 다빈도 처방으로 청심연자탕은 신경정신질환에 26건, 심계질환에 14건이었고, 태음조위탕은 비계질환에 16건이었다.

2) 소음인 처방

소음인에게서 체질처방을 활용하는 다빈도 질환은 비계질환 59건, 폐계질환19건, 신경정신질환 17건, 부

Table 2. Effective Prescription in Taaeumin Pathological Symptom

Classification	GK [*]	MU [†]	YH [‡]	JP [§]	JS	CY [¶]	CS [#]	TJ ^{**}	Etc	Total
Liver disease	1	0	3	0	3	2	5	1	2	17
Heart disease	2	0	6	1	1	14	3	2	3	32
Digestion disease	2	0	1	0	7	2	1	16	8	37
Lung disease	3	6	0	4	1	4	0	2	7	27
Kidney disease	1	0	3	0	0	3	0	0	2	9
Eye ear nose throat disease	3	0	0	1	1	1	0	3	4	13
Surgery disease	8	0	6	0	0	3	3	2	0	22
Neuropsychiatry	0	0	3	0	3	26	0	0	2	34
Locomotorium disease	4	0	2	0	1	1	0	2	2	12
Gynecology disease	1	0	1	0	2	6	0	0	1	11
Pediatrics disease	0	0	0	0	0	0	0	0	0	0
Etc	0	0	0	0	7	0	0	9	4	20
Total	25	6	25	6	26	62	12	37	35	234

*Galgunhaegi-tang, † Mawhangjungchung-tang, ‡ Yeoldahanso-tang, §Joripaewon-tang, || Jowiseongchung-tang, ¶Chungshimyerja-tang, #Chungpesagan-tang, **Taeumjowi-tang

Table 3. Effective Prescription in Soeumin Pathological Symptom

Classification	KS [*]	GJ [†]	GL [‡]	BI [§]	CK	PK [¶]	HB [#]	HY ^{**}	Etc	Total
Liver disease	0	1	0	2	1	2	0	0	2	8
Heart disease	0	0	1	3	0	0	3	0	6	13
Digestion disease	1	3	3	8	1	3	1	17	22	59
Lung disease	1	0	1	1	3	1		1	11	19
Kidney disease	0	0	0	1	0	0	0	0	4	5
Eye ear nose throat disease	0	0	0	3	0	0	0	1	2	6
Surgery disease	0	2	0	1	0	3	0	1	1	8
Neuropsychiatry	3	0	0	0	0	8	3	1	2	17
Locomotorium disease	0	0	0	2	1	0	0	0	2	5
Gynecology disease	0	1	0	0	0	11	0	0	4	16
Pediatrics disease	0	0	0	1	0	0	0	0	3	4
Etc	1	2	1	0	0	1	0	2	1	8
Total	6	9	6	22	6	29	7	23	60	168

* Gaejibanhasaenggang-tang, † Kwakhyangjeonggi-san, ‡ Kwankaebujaleejung-tang, §Bojungikgi-tang, || Chunggungkaeji-tang,, ¶Palmulgunja-tang, #Hyangbujapalmu-Itang,, **Hyangsayangwi-tang.

인과질환 16건, 심계질환 13건, 간계질환 및 외과질환 8건, 안이비인후과질환 6건, 신계질환 5건, 소아과질환 4건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질환에 대해 소음인에게 사용한 다빈도 체질처방은 팔물군자탕 29건, 향사양위탕 23건, 보중익기탕 22건, 광항정기산 9건, 향부자팔물탕 7건, 천궁계지탕, 계지반하생강탕 및 관계부자이중탕 6건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사용회수 10회가 넘는 다빈도 처방으로 향사양위탕이 비계질환에 17건 사용되었고, 팔물군

자탕이 부인과질환에 11건으로 나타났다.

3) 소양인 처방

소양인에서 체질처방을 활용하는 다빈도 질환은 비계질환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계질환 27건, 신경정신질환 24건, 외과질환 21건, 폐계질환 17건, 안이비인후질환 15건, 신계질환 및 운동기 질환 14건, 부인과질환 13건 소아과질환 및 간계질환 2건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질환에 대해 소양인에게 사용한 다빈도 체질처방

Table 4. Effective Prescription in Soyangin Pathological Symptom

Classification	DG [*]	YS [†]	YG [‡]	GB [§]	HD	HS [¶]	HG [#]	HP ^{**}	Etc	Total
Liver disease	0	0	0	0	0	0	1	0	1	2
Heart disease	2	12	0	0	1	4	2	1	5	27
Digestion disease	13	0	1	0	1	2	7	0	4	28
Lung disease	0	3	1	0	2	2	3	2	4	17
Kidney disease	0	4	0	1	1	0	4	0	4	14
Eye ear nose throat disease	0	2	0	1	3	1	2	3	3	15
Surgery disease	0	8	1	4	0	4	1	0	3	21
Neuropsychiatry	2	12	0	1	2	3	2	0	2	24
Locomotorium disease	5	1	3	1	1	0	3	0	0	14
Gynecology disease	4	2	0	0	1	0	4	0	2	13
Pediatrics disease	0	0	1	0	0	2	3	0	0	6
Etc	1	0	0	0	0	0	0	1	0	2
Total	26	34	7	8	12	18	32	7	28	183

* Dockwhalgiwhang-tang, † Yangguksanwha-tang, ‡ Yukmigiwhang-tang, §Giwhangbaekcho-tang, || Hyengbangdojeck-san, ¶Hyengbangsaback-san, #Hyengbangjiwhang-tang, **Hyengbangpaedock-san.

은 양격산화탕 44건, 형방지황탕 32건, 독활지황탕 27건, 형방사백산 18건, 형방도적산 12건, 지황백호탕 8건, 형방패독산 및 육미지황탕 7건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사용횟수 10회가 넘는 다빈도 처방으로 독활지황탕이 비계질환에 13건, 양격산화탕이 심계질환 및 신경정신질환에 12건으로 나타났다.

4) 태양인 처방

태양인에게서 체질처방을 활용하는 다빈도 질환은 신경정신질환 4건, 안이비인후질환 2건, 운동기질환 2건으로 나타났다(Table 5).

질환에 대해 태양인에게 사용한 다빈도 체질처방은 미후등식장탕 10건, 오가괴장척탕 10건, 오가괴쌍해산 2건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사용횟수 10회가 넘는 다빈도 처방은 없었다.

IV. 考 察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의학회 회원들이 사상체질 병증의 이해도와 체질처방에 대해 활용빈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상체질의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체질처방에 대해 임상적 활용현황과 체질병증에 유효한 효과를 보인 처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평균이 30대가 50% 이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상의학에 대한 임상이 젊은 층에서 활발하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환자 치료시 체질처방 비율은 사상체질의학회 집단이 평균 73.1%로 김 등¹⁰의 연구에서 전체 한의사들의 표본집단에서 체질치료 매출의 비율이 23.7% 라고 한 경우와 김 등¹¹의 조사에서 27% 라고 한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났다. 물론 처방사용 비율과 매출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체질처방의 비율이 70%가 넘는 것은 사상의학회 회원들의 체질병증 및 처방 이해도가 다른 한의사들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마는 사상인 처방활용에 있어 질병 분류를 크게 소음인 신수열표열병(腎受熱表熱病), 위수한리한병(胃受寒裏寒病), 소양인 비수한표한병(脾受寒表寒病), 위수열리열병(胃受熱裏熱病), 태음인 위완수한표한병(胃腕受寒表寒病論), 간수열리열병(肝受熱裏熱病), 태양인 내촉소장병(內觸小腸病), 외감요척병(外感腰脊病) 이라 하여 태양인을 제외하고는 체질별로 장부대소(臟腑大小)에 표리한열이라는 개념을 넣어 분류¹²하고 있다. 이는 체질별 증상을 모은 병증 개념¹³에 따른 분류로 예를 들면 소음인의 비소(脾小)로 인한 음식무미, 복통, 설사 등 증상의 집합적 의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류가 사상의학계 내부에게 익숙하나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분류체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록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분류방식이 비록 사상의학체계를 온전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사상의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분류하고 있는 양·한방 분류명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체질처방이 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양방질환으로는 소화기계 질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순환기계, 내분비계, 피부질환, 정신질환, 비뇨생식기계 순이었으며, 한방질환으로는 비계 질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계질환, 신경정신질환, 폐계질

Table 5. Effective Prescription in Taeyangin Pathological Symptom

Classification	MS [‡]	OS [†]	OJ [‡]	Total
Digestion disease	1	0	0	1
Kidney	0	0	1	1
Eye ear nose throat disease	1	1	0	2
Surgery disease	1	0	0	1
Neuropsychiatry	2	0	2	4
Locomotorium disease	0	0	2	2
Total	5	1	5	11

*Mihoodosikjangtang, † Ogapissanghaetang, ‡ Ogapijangchucktang.

환, 간계질환, 부인과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체질처방은 한방과 양방 분류체계상 동일하게 비-소화계질환, 심-순환계질환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비신(脾腎)이 수곡의 창고로 출납을 주하고, 간폐(肝肺)가 기액(氣液)의 문호(門戶)로 호흡을 주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²⁾으로 보인다. 즉 수곡출납에 문제가 생기면 비신(脾腎)이, 기액호흡(氣液呼吸)에 문제가 생기면 간폐(肝肺)가 문제가 되므로 이 질환에 체질처방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체질처방이 소화기계 병증과 심-순환계 병증에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향후 체질처방을 활용한 임상연구의 주제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 다음 순서로 양방질환에서는 내분비계, 피부질환, 정신과질환 순인 반면 한방질환에서는 신경정신질환, 폐계질환, 간계질환으로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체질병증을 설명하는 분류체계가 양방과 한방이 서로 다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양방질환에서 내분비계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인 당뇨병은 한방에서 구갈, 인건, 다음 등 폐비(肺脾)의 열로 인한 증상과 유사하고 갑상선 기능저하 등의 증상은 한방의 불안, 초조, 심계 등으로 분류되는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피부는 한의학 및 사상의학적 으로 폐 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질병분류가 상호간 겹치는 부분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런 관점은 체질처방이 전반적으로 양·한방 질환군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경향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사상의학 처방의 활용 특징이 질병의 종류보다는 체질에 따른 장부대소(臟腑大小) 강약에 의한 인체기운의 승강완속(升降緩束)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체질별로 나타나는 특이 병증에 특효처방을 조사한 본 결과로 보면 태음인의 청심연자탕이 신경정신질환과 심계질환에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태음인의

대표적 특이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충(怔忡)의 경우 동의수세보원 사상인변증론에서는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이라 하여 중병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을 포함하는 심계, 신경정신계 질환에 청심연자탕이 다용되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실제 체질치료의 표준 마련과 향후 체질임상 치료지침 및 체질별 임상시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태음조위탕이 비계질환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비록 태음인이 소화증상이 좋다고는 하나 간혹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라면 후세방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도지제 보다는 습기를 조절해 주는 태음조위탕이 효과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소음인의 경우 향사양위탕이 비계질환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소음인 복통, 설사 음식무미 등의 소화기 질환이 비기의 허약으로 인한 것을 말해주고 있음과 동시에 이런 소화기 질환에는 비위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향사양위탕이 가장 효과적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생리통 및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추가되는 부인과질환에서 소음인일 경우 어혈을 풀어주는 처방보다는 기혈을 보충하는 팔물군자탕 처방이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양인의 경우 독활지황탕이 비계질환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비계질환이긴 하나 처방에 숙지황 등 신(腎)의 음기를 보완해주는 약재를 사용하고 있어 역시 신소(腎小)한 체질특성을 보완하는 처방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소양인 비계질환은 입맛이 저하되거나 하는 소화기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음기가 내려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며 여기에 대한 치료로 소화기능을 촉진해 주기 보다는 음기를 내려주고 있는 독활지황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사상의학의 처방이 체질생리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태양인은 전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처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측소장병이나, 외감요척병이나에 따라 미후등식장탕과 오가피장척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태양인 수가 다른 체질에 비해 적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체질별 특이 병증에는 체질별 생리병리체계상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의 균형을 맞추는

2) 『동의수세보원 감오본』 『태양인 내측소장병론』 水穀 納於胃而 脾衛之 出於大腸而 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而 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胃腕而 肺衛之 吸於小腸而 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而 迭爲進退者也

처방이 좋은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태음인은 심폐가 약해지고, 소음인은 소화기가 약해지는 등 위 약한 장부(臟腑) 쪽으로 병이 많이 와서 체질별 특효 처방 역시 약한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로 구성된 처방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소양인 다빈도 병증이 비계질환이긴 하나 독활지황탕이 숙지황이 군약으로 들어가고 강음에 초점을 맞춘 처방이라는 점에서 특이 병증에 사용되고 있는 체질처방은 체질별 약한 장부를 보완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제구성은 이제마가 명맥실수(命脈實數)로 논하고 있는 체질별 건강수칙인 보명지주(保命之主)를 돌보는 것과 맞아떨어진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체질처방을 사용함에 있어서 질병의 강약보다는 인체 약한 장부를 더 중요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체질처방의 사용현황 및 특이병증에 유효한 체질처방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로 체질처방 사용현황과 강점 분야로 분류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한 분류체계는 비록 소분류에 대한 예시를 들기는 하였으나 대분류 위주의 설문으로 사상의학적 특이병증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더불어 설문연구의 특성상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설문지를 활용했어야 하나, 여기서는 한 등⁷⁾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체질 특성을 묻는 설문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체질처방을 이용한 임상 연구의 질병 및 처방 선용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임상연구에 많은 활용이 되길 희망한다.

V. 結 論

본 연구에서는 현재 체질 임상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질처방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체질병증에 특효를 보이는 처방에 대해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체질 처방을 고려하여 치료 시 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양방질환은 소화기계, 순환기계, 내분비계, 피부질환, 정신질환, 비뇨생식기계 순이었고, 한방질환은 비계질환, 심계질환, 신경정신질환, 폐계질환, 간

계질환, 부인과질환 순이었다.

태음인에서는 신경정신 및 심계질환에 청심연자탕, 비계질환에 태음조위탕이 특효있는 처방이었고, 소음인에서는 비계질환에 향사양위탕, 부인질환에 팔물근자탕이 특효가 있었고, 소양인에서는 비계질환에 독활지황탕, 심계 및 정신과질환에 양격산화탕이 병증별로 특효가 있는 처방으로 사용되었는데, 특이병증에 효과가 있었던 체질처방은 체질별 약한 장부를 보완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체질별 표준 치료지침 개발, 체질임상연구 처방 및 병증 선용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VI. 感謝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인 체질건강수준 표준 개발 과제 of the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10070).

VII. 參考文獻

1. Van Zundert J. Clinical research in interventional pain management techniques: the clinician's point of view. *Pain Pract.* 2007;7(3):219-20.
2. Lee KG, Huang DS, Yu YB, Ma JY, Ha HK, Shin HK. A Study on Composition, Dosages and Usages of Sagunjatang, Samultang, Palmultang, Sipjeondaebotang in Literature. *J of Korean society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006;19(4):219-225. (Korean)
3. Lee JK, Lee NH, Ha HK, Lee HY, Seo CS, Jung DY, et al. Analysis of Studies on Ssanghwa-tang for Establishment of Evidence Based Medicin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8;14(3):41-47. (Korean)
4. Lee TG, Lee SK, Choe BK, Song IB. A Study on the Prevalences of Chronic Diseas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t a Health Examination Center.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2):32-45. (Korean)
5. Lee SD, Kim EJ, Jung CY, Shin KM, Jang MK, Yoon EH, et al. Selection of Adequate Indicators for the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Effects

- of Oject-san. J of Oriental Med. 2010;31(4):101-114. (Korean)
6. Choi SM. Develop Korean acupuncture clinical protocol and conduct pilot study 2005; Basement establishing project on the Acupuncture. Moxibution and Meridian Research Hub. 2005:119-232. (Korean)
 7. Han CH, Shin SH, Ahn SW, Choi SM. A Survey of Actual State of Treatment with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05;22(6):141-153. (Korean)
 8. Yoo JH, Jang ES, Lee HJ, Kim YY, Kim HS, Lee SW. Knowledge and Attitude of Sasang Constitution Investigators on the Sasang Constitution Clinical Study in Korea.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3):118-132. (Korean)
 9. Nation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statistics & data. Financial resource 2004-2008. according to Oriental medicine 12 catalog classification. Available from:URL: <http://www.nhic.or.kr/> (Korean)
 10. Kim HJ, Lee SW, Kim JY.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Constitutional Medical Care Service.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3):166-174. (Korean)
 11. Kim SH, Lee JH, Lee SW.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Constitutional Medical Care Market.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9;23(6):1503-1507. (Korean)
 12. Lee JM. Donguisuseobowon. Seoul: Yeo-gang Press. 2003
 13. Joo JC. The utility of Constitutional Medicine. Hanbitsa. 2007;13p. (Korean)

- ⑨__ 혈액, 조혈계 질환, 빈혈, 출혈성 병태 등
- ⑩__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기타 피부질환 등
- ⑪__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콜레라,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질환 등
- ⑫__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안검염증, 사시, 백내장, 녹내장 등
- ⑬__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난청(청력상실), 중이염 등
- ⑭__ 임신, 출산 및 산욕 질환, 유산, 임신중독증, 난산, 분만 등
- ⑮__ 신생물; 양성 및 악성 신생물 등
- ⑯__ 기타 ()

14. 귀하가 체질 처방을 고려하여 치료 시 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방 질환은 어떤 질환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__ 간계 질환; 울증, 현훈, 협통 등
- ②__ 심계 질환; 두통, 심인성 현훈, 중풍전조증 및 후유증, 흉통, 비증, 화열 등
- ③__ 비계 질환; 복통, 위완통, 체증, 비기허 등
- ④__ 폐계 질환; 감모, 천증, 허로 등
- ⑤__ 신계 질환; 배뇨장애, 소갈, 부종 등
- ⑥__ 안이비인후과 질환; 비강질환, 부비동질환, 인통질환, 이명질환 등
- ⑦__ 외과 질환; 창상, 반흔질환, 창증질환 등
- ⑧__ 신경정신 질환; 심신증, 정충, 경계, 수면장애 등
- ⑨__ 운동기 질환; 요통, 견비통, 경부통, 엄좌, 주비통, 각기, 역절풍, 마목 등
- ⑩__ 부인 질환; 월경부조, 대하, 산후풍, 월경근관, 산후잡병 등
- ⑪__ 소아 질환; 급경풍, 만경풍, 야제 등
- ⑫__ 기타 ()

1-5. 특히 효과를 본 체질처방과 질환 및 (한방)병증이 있다면 그 예를 아래에 3가지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_____ 질병 혹은 (한방)병증 _____ 처방
- ② _____ 질병 혹은 (한방)병증 _____ 처방
- ③ _____ 질병 혹은 (한방)병증 _____ 처방